

#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키로

## 해남군 내년부터 사용 한도액 매뉴얼화 '유리알 시스템' 가동

### 회식 등 단체경비 지출시 참석자 서명 의무화...전용카드제 도입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본보 20일사 12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해남군이 오는 2009년 공모에서부터 정산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관리하는 '유리알'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남군은 "내년부터 매년 관내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3억여 원의 보조금에 대해 인건비와 여비, 원고료를 비롯한 모든 항목에 대해 사용 한도액을 매뉴얼화하는 한편 전용 카드제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료의 경우 5등급으로 나눠 1시간

당 최고 15만 원에서 최저 3만 원으로 정하고, 인건비도 3만 3천 원(1인 1일), 원고료 1만 5천 원(A4 용지 1매 기준), 식비 7천 원(1인 1식), 숙박비 3만 원(1인 1박) 등 세부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예산 전용 사례로 지적받아온 식비 등 단체 경비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확인 서명 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또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지출은 전용 카드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에서 제외시켰다.

보조금 집행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해 오던 기존 시스템을 모두 철폐하는 한편 공모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8대 기본 항목으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초에 70%를 선 지원하고, 9월에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중간 평가를 거쳐 30%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점검 제도도 신설했다.

군은 이 같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어기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행운의 호박이 닦겨져 풀러와요"** '2008 행운의 호박축제'가 열리는 장성호 관광지. 찾은 어린이들이 형형색색의 호박으로 만든 한반도 모양의 지도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지난 24일 막을 올린 호박축제는 호박터널 통과하기, 호박바구니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된다. (장성호 제공)



### 담양 도로변·관광지 꽃길로 단장

가꽃·조·수수·메밀꽃 등 향토작물 심어 관광객 유혹

가로수길로 유명한 담양군이 이번에는 꽃길로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담양군은 내년 10월까지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도로변에 가꽃과 조·수수·메밀꽃 등 어린시절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향토 작물을 심고 허수아비 등을 설치한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유명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는 추억

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계절 꽃을 심고 원두막과 절구·지게·장독대 등도 배치된다. <사진> 국도 29호선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도 유채꽃과 조롱박, 채송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과 농산물을 심을 예정이다.

또 죽녹원을 비롯해 죽향문화 체험마을과 대나무박물관, 가사문화관 등 주요 관광지에는 울타리와 초가집, 장독대 등을 설치하고 토종닭과 토끼, 염소 등 소규모 가족동산도 조성된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장수촌 순창서 '100세인 잔치' 열~쭈

#### 곡성 옥과면 자치센터 '장수촌 경연대회' 대상

'제 1회 100세인 잔치'가 지난 25일 전북 순창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렸다. <사진> 국내 최장수 지역인 담양·구례·곡성·순창 등 4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100세인 잔치에서는 조선시대 때 80세 이상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베풀었던 '양로연의(養老宴儀)'와 함께 세계 장수지역 석학들이 참여한 국제 심포지

엄, 장수춤 체조 전국 경연대회 등이 펼쳐졌다.

전국 31개팀 800여명이 참가한 장수춤 체조 전국 경연대회에서는 곡성군 옥과면 자치센터가 대상을 차지했다.

옥과면 자치센터는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멋진 춤으로 선보여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 강진만 '출렁다리' 멋진 경관 "글세요"

### 전남도 사업비 부담 난색...건설규모 대폭 축소 불가피

길이 1km에 이르는 국내 최장 인도(人道)전용 다리인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의 건설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최근 실시할 예정인 사업을 갖고 당초 42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102억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처럼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 사업이 축소된 것은 전남도가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가우도를 강진만의 최고 관광 명소 만들기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사업비 부담을 우려한

전남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진만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등 바다위 경관을 살리기 위해 대형 주탑 10여개를 세워 나선형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은 지주식 직선형으로 변경됐다.

또 40여m로 계획된 주탑 높이도 크게 낮아지고 다리 너비도 4.4m에서 2.2m로 줄었으며 항로 2곳에 70m 간격의 18m의 주탑 4개만 들어설 계획이다.

군은 내년초 실시설계가 최종 마무리되면 20억원을 들여 어업권 보상과

토지매입에 나선 뒤 6월 공사에 들어가 2011년 완공할 계획이다.

말발굽(U) 모양의 강진만 한 가운데 떠 있는 가우도(駕牛島·30여만 m)를 연결하는 이 다리의 길이는 1km로, 인도 전용교로는 국내 최장이다.

섬을 사이에 두고 다산초당과 백련사, 해안일주 도로 등이 있는 도암면에서는 700여m, 고려청자 도요지와 마량항 진입로인 대구면에서는 300여m씩 다리가 연결된다.

군은 다리 양쪽에 1만2천여㎡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주차장과 파고라, 쉼터,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함평 나비산업특구 '2008 우수특구'

### 지경부 선정...포상금 1억5천만원 받아

함평 나비산업특구가 지식경제부에 의해 '2008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함평 나비산업특구는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까지 지정된 전국 79개의 지역 특구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평가에서 우수 모범 특구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나비산업 특구는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6월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됐다.

군은 특구 지정에 바탕으로 주제 영상관, 전시관, 나비·곤충생태관, 하천 홍보관 등의 시설을 건립해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성공을 뒷받침했다.

한편 함평 나비·곤충엑스포는 유료 관광객 101만여 명에 93억여 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 '완도군 하나되기' 출향 향우단체가 앞장

### 24일 '화합 한마당'...발전 촉구 성명서 채택

전국 각지에 있는 완도 출향 향우들이 지역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군 향우단체는 지난 24일 완도 씨월드 호텔에서 지방발전 개혁을 촉구하는 '완도 하나되기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 완도 향우단체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손경무 재경 완도군 향우회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 완도군 향우회장단, 김종식 군수, 김용일 군 번영회장, 정동환 농협중앙회 군

지부장, 사회 유관 단체장, 향우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합·발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행사는 완도군과 지역 W신문 간 갈등과 진정 투자 등으로 인해 분열된 지역 상황을 우려해 군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손경무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25만 군민과 향우인들은 지역화합으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고, 공직자들은 낮은 자세로 군민에 봉사해야

한다"면서 "근거 없는 진정서와 투서를 남발하거나, 선거를 의식해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인들은 주민소환제나 낙선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신문과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군민들의 신뢰 회복과 화합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마치고 재경 완도군 향우회와 광주, 인천, 안산, 목포, 제주 등 향우회들은 '전국 연합 완도군 향우회'를 결성했다. /완도=정문조기자 ejchung@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14(금) 오픈**

**11월 14(금) 장운정**

**광주첨단·폭스존열 호박 나이트**

15일 16일 조양조	17일 18일 송대관	20일 21일 최진희	25일 박현민	27일 28일 김수희	4일 5일 שלמדו
----------------	----------------	----------------	------------	----------------	----------------